

울산광역시, 2022 NEAR 국제포럼 참가(4.28)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2.04.29.(금)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울산매일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 참가	
2	신문	매일안전신문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 참가	
3	신문	울산종합일보	울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 참가	
4	인터넷	더코리아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5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	인터넷	경인뉴스투데이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7	인터넷	인디포커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8	인터넷	정필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9	인터넷	미디어이슈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10	인터넷	미디어타임즈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11	인터넷	청솔뉴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12	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참가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 참가

28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역대 최다 6개국 58개 회원단체 참석

조혜정 승인 2022.04.28 22:30



▲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에 참가했다.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하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혜정

jhj74@iusm.co.kr

입력.편집 : 2022-04-28 21:35 조혜정 기자

HOME > 종합뉴스 > 정치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 참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 기사작성 : 2022-04-28 15:27:45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 역대 회원단체 등 200여 명 참석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에 울산시가 참가하여 농촌, 농식품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 대응 세계지방 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중국 하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6차 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 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 농업대 나상 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 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 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 현재는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매일안전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idsn.co.kr>]

울산종합일보

HOME > 뉴스 > 사회

울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 참가

신유리 기자 / 기사작성 : 2022-04-28 16:01:43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역대 최다 6개국 58개 회원단체 등 200여 명 참석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유리 기자

[저작권자 © 울산종합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jnews.co.kr>]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 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오늘(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
역대 최다 6개국 58개 회원단체 등 200여 명 참석

이채원 기자 hbs7733@daum.net

등록 2022.04.28 22:49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pyright ©2022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기사입력시간 : 2022/04/28 [18:52:00]

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울산시청사

[케이에스피뉴스=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 토론회(포럼)' 참가

기사게재일: [2022-04-28 12:49:35]

신보경 press123@ktin.net 기자



▲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 토론회(포럼)' 참가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 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 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인투데이뉴스 제공-



인디포커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 역대 최대 6개국 58개 회원단체 등 200여 명 참석

기사입력시간 : 2022/04/28 [22:00:00]

김중건

(인디포커스/김중건)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대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초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지역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기자가 만드는 미디어세상

정필 正筆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기사입력시간 : 2022/04/28 [18:52:00]

김은정 기자 kspa@jeongpil.com



울산시청사

[정필=김은정 기자 kspa@jeongpil.com]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 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지역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김경희 기자 | 2022-04-28 [18:52]



가 | 가+



울산시청사

[미디어이슈=김경희 기자]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희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Notice: Undefined index: HTTP_REFERER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newnews/print.php on line 3



미디어타임즈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기사일렉서간 : 2022/04/28 [18:52:00]

편집 기자



[미디어타임즈=편집 기자]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솔뉴스 PINENEWS - 푸르고 당당한 청솔처럼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참가

6차산업 육성 통한 농촌산업 미래 발전 방안 등 모색

기사입력시간 : 2022/04/28 [18:52:00]

배재용 기자



울산시청사

[청솔뉴스=배재용 기자] 울산시는 4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다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

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참가

(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일시 : 2022-04-29 00:03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28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농촌 및 농식품 산업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토론회(포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역대 최대 58개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단체 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럽지방정부연합(AER),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기후변화대응 세계지방행동기구(R20) 등 국제기구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중국 하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6차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동 판촉(마케팅)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기구 소속 오니시 치에 박사, 중국 산시농업대 왕광빈 교수, 몽골 국립농업대 나상자르갈 부학장, 러시아 연해주 농업대학 코민 안드레이 총장 등 외국 전문가들도 농업 6차산업 관련 각국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오는 9월 20일 ~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거래터(플랫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ji2498@naver.com

Copyright ©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